

라인홀드 니버의 기독교 변증법과
기독교 공동체 윤리

유경동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기독교 윤리학

- I. 서론: 문제 제기
- II. 변증법 비판
- III. 기독교 변증법
- IV. 니버의 기독교 변증법과 기독교 공동체 윤리
- V. 결론: 역설과 모순을 넘어

〈한글 초록〉

라인홀드 니버의 ‘기독교 변증법’은 역사적으로 1, 2차 세계 대전을 통한 문명의 위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 대결, 신학적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 그리고 르네상스와 이성주의에 맞선 신중심주의적 기독교 세계관의 틈바구니에서 형성된 신학적 사조이다. 이론적으로는 독일의 관념론에 기초한 헤겔식의 ‘변증법’을 비판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상대적인 정의(Justice)인 공산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기독교 변증법의 원리로 삼고 그 외 이론과 체제를 상대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예언자적 담론’을 니버는 전개한다.

‘기독교 변증법’은 현시대에도 여전히 기독교 신학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필자는 파악한다. 특히 니버의 신학은 칼 바르트와 그 궤를 같이하면서도 예언자적 지평에서 기독교 공동체성을 더 강조함으로써 공공영역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점 주변화되는 현실 기독교의 문제에 대하여 재 정향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 줄 수 있다고 필자는 이해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니버의 변증법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것은 각각 니버의 ‘변증법 비판’, ‘기독교 변증법’, 그리고 ‘공동체 윤리’에 관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니버의 기독교 윤리적 관점을 다시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라인홀드 니버, 기독교 변증법, 사랑과 정의, 예언 종교, 하나님의 나라

I. 서론: 문제 제기

‘기독교 변증법(Christian dialectics)’이란 인간의 합리성을 통한 역사의 발전에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고 신학적 방향을 재정향하는 운동에서 붙여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관념론과 1, 2차 세계 대전의 발발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본 ‘기독교 변증법’이 제시한 날카로운 통찰력은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유한성 그리고 역사의 의미에 대하여 새로운 신앙관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망에 빠진 인간이 처한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신학적 대안으로 부상하여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칼 바르트(Karl Barth),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 그리고 스탠리 하우워워스(Stanley Hauerwas)와 같은 학자들을 통하여 이어지고 있다.

‘기독교 변증법’은 현시대에도 여전히 기독교 신학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필자는 파악한다. 특히 니버의 신학은 칼 바르트와 그 궤를 같이하면서도 기독교 공동체성을 더 강조함으로써 공공영역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점 주변화되는 현실 기독교의 문제에 대하여 재정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 줄 수 있다고 필자는 이해한다.

그동안 라인홀드 니버 연구가 권력의 속성과 인간성의 한계를 지적한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정치 신학적인 접근이 이루어졌지만 본 논고를 통하여 니버 신학이 중시한 기독교 공동체 윤리의 이론적 토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니버의 변증법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것은 각각 니버의 ‘변증법 비판’, ‘기독교 변증법’, 그리고 ‘공동체 윤리’에 관한 것이다. 니버의 ‘변증법 비판’을 통하여서는 헤겔과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며, ‘기독교 변증법’에서는 니버의 역사 해석의 원리가 되는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사랑과 정의’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리고 ‘공동체 윤리’에서는 위의 ‘기독교 변증법’의 의의에 대하여 조명하여 보도록 하겠다.

국내 선행연구를 보면 바르트와 본회퍼의 변증법적 신학에 대한 논문이 소수 눈에 띄지만 니버의 변증법에 대한 논문은 없다.¹⁾ 다만 본 논문은 지면의 한계 상

1) 필자가 DBpia를 통하여 ‘종교학/신학/변증법’을 검색하여보니 본회퍼와 바르트의 변증법 분석에 대한 논문이 각 1편씩 있으며 툴리히(Paul Tillich)와 바르트 비교 논문이 1편 있음을 확

니버의 1차 자료를 중심으로 그가 이해한 기독교 변증법을 분석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칼 바르트나 본회퍼의 변증법과의 차이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지 못하였는데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하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변증법 비판

니버의 변증법 비판은 역사적으로 1, 2차 세계 대전을 통한 문명의 위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 대결, 신학적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 그리고 르네상스와 이성주의에 맞선 신중심주의적 기독교 세계관의 틈바구니에서 형성된 신학적 사조이다. 이론적으로는 독일의 관념론에 기초한 헤겔식의 ‘변증법’을 비판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상대적인 정의(Justice)인 공산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기독교 변증법의 원리로 삼고 그 외 이론과 체제를 상대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에언 자적 담론’을 니버는 전개한다. 니버의 주요 저작에서 그의 이념적 비판의 대상이 되는 헤겔의 관념론이나 같은 신학적 궤를 형성한 바르트의 변증법에 대한 이론적 전개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어거스틴이나 신플라톤주의의 사상적 배경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니버는 주로 마르크스주의나 러시아 공산주의에 대한 부분에 해석을 집중하고 있지만 그의 변증법 비판은 특히 당시 니버가 처한 역사적 상황에 대한 신정통주의 신학의 정수를 볼 수 있으며 정치적 이념과 권력의 폭거 그리고 이성주의의 한계를 통찰하는 분석을 통하여 현 우리의 기독교 신학이 처한 공공성의 한계에 대한 대안을 짚어 볼 수 있는 장을 열어 준다고 본다. 아울러 전 세계 만연한 이데올로기의 갈등에서 기독교 정치 신학의 방향이 무엇일지 제시하여 줄 것이라고 필자는 이해한다.

본 장에서는 니버의 ‘기독교 변증법’을 다음 장에서 분석하기 전 그의 ‘변증법 비판’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주로 헤겔과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공산주

인하였다.

URL=http://www.dbpia.co.kr.proxy.mtu.ac.kr:8080/search/topSearch?startCount=0&collection=ALL&range=A&searchField=ALL&sort=RANK&query=%EB%B3%80%EC%A6%9D%EB%B2%95&srchOption=*%&includeAr=false#none (최종접속: 2020년 9월 29일).

의에 대한 비판으로 구성되며 일부 그와 사상적 맥락을 같이하는 바르트와의 차이점에 대한 니버의 관점을 엿볼 수 있다.

니버는 『기독교 윤리학의 이해』(*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1935)에서 자유주의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변증법(dialectic)’을 설명하는데, 이는 히브리 예언 운동과 기독교의 세속화된 이념들이 결합한 개념이라고 지적하면서 마르크스주의 경우 순수한 예언 운동에 그 배경을 두고 있지만, 그 한계는 물질주의적 사관이며 그 특징은 “기계론적이라기보다는 변증법적”이라고 정의한다.²⁾ 이때 변증법은 ‘명제(thesis)’와 ‘반명제(antithesis)’, 그리고 ‘종합명제(synthesis)’로 구성되어 “자유주의적 물질주의의 단순한 진화론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역사의 복잡한 사실에 더 가까운” 개념이라고 니버는 설명한다.³⁾ 그러나 서구 사회에서 히브리-기독교적 신화는 “세상의 창조주이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생의 궁극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인데, 인간은 자신들이 처한 “역설적으로 변증법적”인 운명을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는 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⁴⁾ 즉, ‘명제’로부터 시작하는 발전의 원리에 있어 ‘명제’의 유한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반 명제’를 통하여 ‘종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명제’의 유한성이 자연적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전제는 이론 자체의 모순이라는 것이다.

니버는 영적 특성을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한 변증법적인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

2)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Harper & Brothers, 1935), 17.

URL=<http://eds.a.ebscohost.com.ssl.proxy.mtu.ac.kr:8080/eds/ebookviewer/ebook/bmxlymftXzU1ODMwN19fQU41?sid=20a9e653-6deb-4f36-b024-574259778d8f@sessionmgr4006&vid=1&format=EB&rid=4>. (최종접속: 2020년 9월 29일). 이하 니버의 주요 1차 자료는 아래의 인터넷 도서관을 통하여 연구하였음을 밝힌다. *Leaves from the Notebook of a Tamed Cynic* (Willett: Clark and Colby, 1929),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of Ethics and Politic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36), *Beyond Tragedy* (Charles Scribner's Sons, 1937),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0),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ew York: Nisbet & Co, Ltd, 1941),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ew York: Nisbet & Co, Ltd, 1941),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London: Nisbet & Co., LTD, 1943), *The Contribution of Religion to Cultural Unity* (The Hazen Pamphlet, USA, 1945),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Sermons for Today and Tomorrow*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6), *Faith and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9).

URL=<https://archive.org/search.php?query=Reinhold%20Niebuhr> (최종접속: 2020년 9월 29일). 참고로 위에서 언급한 1차 자료 외 다른 사이트를 통한 1차 자료는 별도로 소개한다.

3) 앞의 책, 17-18.

4) 앞의 책, 21.

는 자연주의의 윤리학적인 방법론이 가지는 약점의 대표적인 예로 불가능의 가능성으로서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유토피아적 환영에 빠지게 되며, 사랑을 인간적인 조건에 맞추면 사랑의 이상이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바뀌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⁵⁾ 다른 비근한 예로 서구 르네상스와 이성의 시대에 ‘부정의’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의 원인을 “인간의 무지와 이기성”으로 간주하여 “인간의 지혜와 자선을 증대하는” 방식을 통하여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종교적인 이상주의자들은 무지보다는 이기성이 문제라고 보아서 이기성을 억제하고 자선을 권장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이성주의자들은 교육과 같은 계몽을 통하여 사회의 부정의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방식 또한 일종의 자연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한계가 있다고 니버는 지적한다.⁶⁾

니버에게 변증법 비판은 이 개념이 어떻게 정치적 목적에 사용되는가를 분석하는 데에 중심을 두는데, 에곤 피델(Egon Feiedell)의 『근대의 문화 역사』(*A Cultural History of the Modern Age*)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니버는 과두제가 파국으로 치닫는 이유는 죄성으로 점철된 권력이 국가의 불법적인 지배체제를 정당화하여 “보다 명확하게 변증법적이고 열정적인 웅변”으로 백성들을 기만한다고 지적한다.⁷⁾ 같은 맥락에서 러시아 공산주의에 나타나는 변증법의 문제는 이기적으로 물욕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권력의 의지”는 자본주의의 병폐를 그대로 답습할 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하여 적대적인 세력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게 되는 개념이 된다고 지적한다.⁸⁾

니버는 이처럼 정치에서 나타나는 권력과 독재 체제 이면의 이념적 허구를 분석하면서 ‘헤겔’과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기독교 이상주의’의 변증법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비판하는데 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헤겔의 변증법은 ‘정의(Justice)’의 사안과 연관하여 존재나 비존재의 속성이 포함되지 않는 “되어짐(becoming)”을 표방하는 것이라고 니버는 설명한다.⁹⁾

5) 앞의 책, 116.

6)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23.

7) Reinhold Niebuhr, *Beyond Tragedy*, 203. 니버는 이 인용에 대하여 별도의 출처 표기는 하지 않았다.

8) Reinhold Niebuhr,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146-48. 니버는 러시아 공산주의 전통에서는 “평등주의”가 강하여 권력자가 함부로 “물질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시절도 있었다고 부연하고 있다. 같은 책, 148.

9)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A Christian Interpretation*, 279.

‘사고하는 것(thinking)’과 ‘존재(됨, being)’를 하나라고 주장한 파르메니데스(Parmenides)의 경우와는 달리 ‘존재하는 것(becoming)’을 ‘사고하는 것(thinking)’과 ‘존재(being)’ 양자의 변증법적인 관계로 헤겔은 보았다고 니버는 분석한다.¹⁰⁾ 이를 기반으로 한 헤겔의 정·반·합의 과정은 지속해서 새로운 ‘정(thesis)’으로 시작되는 과정을 반복하여 역사가 발전하는 운동을 기대하였던 헤겔의 변증법은 전적으로 ‘이성적’이라고 니버는 지적한다.¹¹⁾ 니버는 마르크스의 경우 헤겔의 이성을 “관심과 열정의 도구”로 해석하여 “사회와 정치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무기로 사용하였다고 분석하면서, 마르크스주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예외로 하고 “모든 조직의 도덕적 사회적 이상에 이념적 오염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공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고 니버는 분석한다.¹²⁾ 니버는 위와 같은 변증법의 총체적 문제를 “헤겔의 반동적 환영, 콩트의 부르주아적 환상, 그리고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적 환상”이라고 비판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성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미래의 목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여지를 변증법은 남겨두지 않고 ‘현재’의 결과를 절대적으로 여기고 그 결과를 영구불변한 것으로 해석한 것은 잘못된 개념이라고 니버는 비판한다.¹³⁾

둘째, 마르크스주의의 논리는 인간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역사의 변증법’으로서 기독교의 섭리라는 개념과 유사하고 스토의 주의의 색채가 강하여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면이 있지만 니버가 판단할 때 마르크스주의는 자연을 배제하고 인간의 경제적 합리성만을 통하여 역사 발전을 추진하는 이념이라고 정의한다.¹⁴⁾ 니버의 비판은 마르크스주의와 기독교의 사관을 비교하면서 분명하여지는데, 마르크스주의의 물질 사관은 “물질이 영의 필수적인 기능을 감당한다.”라는 전제로 스스로 발전하여 나아간다는 변증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반하여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로 구성되었다고 본 유대교 예언자들의 사관”은 세상의 구속이 “역사를 초월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종점에 있다.”라고 보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한다.¹⁵⁾ 니버는 마르크스주의의 ‘신’은 일종의 우상이라고 설명

10) Reinhold Niebuhr, *Faith and History*, 38.

11) Reinhold Niebuhr, *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5), 122.

12) Reinhold Niebuhr, *Faith and History*, 160.

13) Reinhold Niebuhr, *Beyond Tragedy*, 222.

14)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A Christian Interpretation*, 47.

15) Reinhold Niebuhr,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190.

하는데 그 이유는 “자연과 역사의 일치라는 [연장선에서]” 변증법을 전개하기 때문에 무신론에서 암시하는 신은 궁극적 의미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부정하기보다는 거짓된 신을 숭배하는 우상”과 같다고 비판한다.¹⁶⁾ 이와 같은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은 헤겔식 기계론적 물질주의라고 니버는 지적하면서 “자연과 역사”가 “의미의 합리적 구조”를 가지고 실재에 상관한다고 보는 관점은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니버는 부연한다.¹⁷⁾ 나아가 니버는 마르크스의 역사 개념을 “역사의 변증법”이라고 지칭하면서 인간의 이성적이며 창조적인 생명력이 계층 관계의 역학적 관계를 통하여 사회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이와 같은 역사 발전의 실제적인 현실은 특정 계층이 기층 계급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 역사는 비극으로 치닫게 된다고 니버는 진단한다.¹⁸⁾ 마르크스주의는 사회가 물리학처럼 일종의 ‘운동의 법칙’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처럼 사회의 역동성을 피력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개인적 자기 충족성의 환상을 부정하면서 역사 내 운명과 결정 사이의 적절한 변증법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정도라고 니버는 비판한다.¹⁹⁾ 더군다나 마르크스주의는 부르주아 계급처럼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새로운 세계와 이전 세계의 파괴와 죽음을 통하여 이상적 세계가 가능하다고 봄으로써 “파국은 그의 [프롤레타리아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보상의 전제였다.”라고 니버는 지적한다.²⁰⁾

니버는 공산주의에서 강조하는 역사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피착취계급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부르주아 계급을 물리치고 권력의 독점을 쟁취하는 역사적 변증법적 과정을 일종의 ‘섭리’처럼 여기고 이 과정이 마치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득세가 마치 “정의의 승리”처럼 비쳐질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공산주의의 잔인성과 부정의의 뿌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한다.²¹⁾ 역사 안에서 공산주의가 강조하는 메시아적 기능을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부여한 것은 “궁극적인 선” 대신 부르주

16) Reinhold Niebuhr, *Faith and History*, 153.

17) Reinhold Niebuhr,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2), 6. URL=<http://eds.a.ebscohost.com.ssl.proxy.mtu.ac.kr:8080/eds/ebookviewer/ebook/bmxlymtfXzMxOTMzNF9fQU41?sid=20a9e653-6deb-4f36-b024-574259778d8f@sessionmgr4006&vid=1&format=EB&rid=6>. (최종접속: 2020년 9월 29일).

18)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A Christian Interpretation*, 53.

19) Reinhold Niebuhr,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44-45.

20) Reinhold Niebuhr, *Faith and History*, 3-4.

21) Reinhold Niebuhr,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73.

아 계급에 대한 적의를 통하여 사회적 부정의를 증대시킨 ‘죄’라고 니버는 해석하면서 “역사 내 특정 자아와 특정 세력의 이익을 역사의 하나님의 최종 목적과 동일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다.²²⁾ 니버는 이와 같은 공산주의의 역사적 변증법은 일종의 신개념과 같은 것으로서 “자신들의 열망과 자신들의 권력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동일시”해서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것이다.²³⁾

셋째, 니버는 정통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그 사상적 궤를 같이하는 바르트의 변증법을 언급하지만, 그 이론적 한계에 대하여서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니버는 바르트의 “변증법적 신학”을 루터의 비판주의의 연장선에서 파악하였는데, 니버는 “정치학과 경제학의 복잡성에 있어서 정의의 [문제들을] 설명하는데 필수적인 ‘상대적인 결정(relative decision)’을 내리는” 문제와 관련하여 양심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바르트는 독일의 독재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고 권력과 인간성 자체의 한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정의’의 문제와 관련하여 ‘상대적인 정의’와 ‘부정의’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였다고 니버는 파악한다.²⁴⁾ 이러한 니버의 지적은 바르트의 변증법이 인간 이성의 한계를 강조하여 행위의 책임에 있어서 양심의 가능성에 그 의의를 두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것이며 니버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 아닌 양심의 가능성에 대하여 중시하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니버에게 이성과 양심의 역할은 변증법에 대한 유용한 비판의 도구로 해석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니버는 전쟁과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적하면서 “모든 사회적 상황과 매사의 현실적인 문제들”은 사람들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할지 힘든 상황에 부닥치게 한다고 지적한다.²⁵⁾ 그런데도 “인간 본성의 도덕적 자원과 한계를 분석하는 목적”은 사회의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인데, 니버는 이러한 방법론을 통하여 인간의 도덕적 가능성을 복돋을 수 있는지, 또한 인간의 집합적인 행위에서 인간 본성의 한계가 극복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희망을 품고 정

22) 앞의 책, 122.

23) 앞의 책, 173.

24) Reinhold Niebuhr,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58. 니버는 헤겔의 인간의 ‘보편적인 의지’에 대한 이론이나, 니체의 ‘가치의 가치 전복(transvaluation of values)’, 그리고 허더(Herder)와 피체(Fichte)의 “인종과 생명력에 관한 낭만적인 강조” 모두 다 나치주의의 배경이라고 설명한다. 같은 책, 57.

25) Reinhold Niebuhr, *Leaves from the Notebook of a Tamed Cynic*, 35.

치적 방법론의 역할에 대하여 주목하는 것이다.²⁶⁾

지금까지 필자는 변증법에 대한 니버의 비판을 살펴보았다. 헤겔의 관념론과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니버의 분석은 바르트 신학과 자연주의의 이론적 약점에 대하여서도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다면 니버가 제시하고자 하는 기독교 변증법의 내용은 무엇인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자.

Ⅲ. 기독교 변증법

앞 장에서 필자는 니버가 비판한 변증법의 특성이 무엇인지 정리하여 보았다. 특히 ‘상대적인 정의’와 ‘부정의’의 차이점을 지적한 니버의 신학에서 ‘인간 이성’이 중시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장에서 살펴볼 니버의 ‘기독교 변증법’은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형성이 된 사관이다. 니버는 ‘기독교 변증법’을 통하여 역사의 의미와 인간의 책임 그리고 공동체의 이상에 관한 주제를 붙들고 치열하게 고민함으로써 여전히 기독교 세계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필자는 이해한다. 니버의 기독교 변증법은 일종의 ‘기독교적 예언 정신’으로서 인간과 권력 그리고 역사의 허위의식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통찰하고 큰 틀에서 ‘역사의 해석에 있어서 예언 종교의 특성’,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사랑과 정의’의 관계를 통하여 역사 해석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니버는 역사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언 전통에서 보여주는 ‘믿음’이라고 강조하면서 마르크스주의는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한 ‘역사적 변증법’으로 역사를 해석하려고 시도하지만, 그와 같은 접근 방식으로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²⁷⁾ 니버는 기독교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하여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는 바로 “예언 종교의 변증법적” 특징을 파괴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유한한 역사의 사안을 영원한 것처럼 간주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기독교 진리관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 의미와 같은 영원성의 사안을 유한한 시간과 역사의 상대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한다.²⁸⁾ 니버는 구약

26)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xxiv-xxv.

27)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A Christian Interpretation*, 151.

28)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141.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신성 계약을 어기고 교만에 빠져있었을 때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변증법적으로 설명한다고 강조하면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암 3:2)”의 말씀은 바로 인간이 처한 한계에 대한 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부연한다.²⁹⁾ 즉,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과 인간의 역사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도하는 진리가 된다는 사실에 기독교 변증법은 출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니버가 강조하는 ‘역사 해석’의 근본적 원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로 말미암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의 측면에서 역사를 보는 관점으로서, 이것이 궁극적인 역사의 의미를 드러내어 준다고 니버는 강조한다.³⁰⁾ 예를 들어 아모스 예언자는 이스라엘이 그 피조성을 망각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아적 희망을 선포하는데,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을 넘어 세상의 권력을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는 모든 국가의 심판으로 향하면서, 히브리 묵시 문학은 임박한 종말과 이스라엘의 평안 사이에 긴장을 형성한다고 니버는 설명한다.³¹⁾ 니버는 출애굽 전후의 예언적인 관점은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국가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데 이것이 인간의 역사와 관련하여 역설적인 질문으로 남게 된다고 니버는 강조한다.³²⁾ 니버가 이 질문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1, 2차 세계 대전을 경험하고 마르크스주의의 파괴성을 이해하고 있는 니버는 소위 서구의 문명 자체도 교만을 반성하지 않으면 구약성경의 예언서 내용처럼 제국주의의 멸망과 문명의 파괴에 이르는 같은 운명에 빠질 것이라는 암시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 니버는 이와 같은 사안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인간의 죄에 대한 각성과 하나님의 심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바로 성서에 나타나는 신앙의 요소를 주목하는 것이라고 니버는 주장한다.³³⁾

니버는 아모스가 선포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승리”,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미지와 연관하여 본래 심판의 이미지가 약화하

29) Reinhold Niebuhr, *Faith and History*, 106.

30)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A Christian Interpretation*, 150.

31) 앞의 책, 150-51.

32) 앞의 책, 151.

33) 앞의 책, 152.

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더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진노의 관계”라는 기독교 변증법적 관점이 잘 설명하여 준다고 강조한다.³⁴⁾ 즉,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을 멸하기 위한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자비로운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렇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의미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의 궁극적 신비”를 드러내는데, 이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대변하여 준다고 니버는 설명한다.³⁵⁾ 따라서 니버의 기독교 변증법은 인간의 죄와 교만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은 역사의 파괴로부터 돌아서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재 정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니버는 기독교의 예언적인 전통에서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변증법적인 관계에 대하여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기독교 변증법을 설명한다. 니버는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변증법적인 관계는 “피조 세계와 창조주의 관계, 피조물의 의존성과 부족한 존재의 상태와 하나님의 자유와 자족성의 관계”를 잘 드러내어 준다고 보면서, 피조 세계는 신플라톤주의의 사관처럼 “근원적 신적 일치와 영원성의 타락”을 의미하지도 않으며, 불교의 경우처럼 “불충분하고 종속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피조성의 “욕망과 고통”으로서의 ‘악’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며, 피조물의 선성(goodness)은 부정되지 않으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어거스틴적 관점에서 창조주와 피조 세계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명된다고 니버는 강조한다.³⁶⁾ 니버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이상을 위한 귀한 대가를 치를 필요성을 증명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이해하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었을까 고민하면서 그 십자가는 “궁극적 실재의 상징”임을 확신한다고 고백한다.³⁷⁾

34) 앞의 책, 152.

35) 앞의 책, 152-53.

36) 앞의 책, 181. 어거스틴의 관점은 그의 고백록 10장에 나오는 피조물의 대화에 관한 것으로서, 어거스틴은 피조 세계의 속성인 창조주에 대한 ‘종속(dependence)’과 피조물의 ‘선함(goodness)’ 사이의 변증법적인 관계는 피조 세계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맥락에서 파악하였다고 니버는 각주로 설명한다. 같은 책, 181. 니버의 어거스틴 인용은 다음과 같다. “Confession, Book X.”

37) Reinhold Niebuhr, *Leaves from the Notebook of a Tamed Cynic*, 106. 이러한 고백은 1925년 니버의 회상에 나타난다.

그러나 니버는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변증법적인 관계를 설명하는데 주의하여야 할 점으로 ‘내재하는 그리스도(immanent Christ)’의 개념에 대하여서는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 개념이 ‘완전주의’에서 언급되는 이론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인성 안에 그리스도의 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사조는 “역사적인 것과 영원한 것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모호하게 한다.”라고 니버는 경계한다.³⁸⁾ 그 이유는 “역사 안에 있는 인간의 자유”를 통하여 선과 악에 대한 인간의 선택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³⁹⁾ 니버는 또한 천년왕국과 연관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parousia)’ 개념도 상징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역사를 영원으로 보는 문제가 발생하든지, 아니면 영원성이 역사의 유한성으로 제한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한다.⁴⁰⁾

만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역사의 완성이 역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영원으로 잠식되어 역사와 초 역사의 변증법적 관계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다.⁴¹⁾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유토피아적 사관과 초월적 세계관의 잘못된 경향을 바로 잡아 주는 점이 있다고 니버는 강조하는데, 유토피아적 관점과 달리 ‘재림’은 역사의 궁극적인 성취는 유한한 이 세상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며, 동시에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성취는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 ‘재림’에 관한 중요한 관점이라고 니버는 주장한다.⁴²⁾ 이와 같은 해석을 통하여 니버의 기독교 변증법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피조 세계가 연결되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의 소망이 역사를 완성하는 ‘궁극적 실재’가 되어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역사의 성취는 인간의 이성과 권력이 아니라 역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역사의 완성은 인간이 기대하는 계획에 의한 역사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끝에서 종말론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니버는 강조한다.

셋째, 니버는 기독교 변증법으로서 ‘사랑과 정의’에 관계에 대하여 강조한다. 그는 예언 종교의 가장 중요한 이념은 ‘사랑’이라고 강조하면서, “용서로서의 사랑은 도덕적 성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불가능하다.”라고 정의한다.⁴³⁾ 니버

38)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A Christian Interpretation*, 182.

39) 앞의 책, 182.

40) 앞의 책, 299.

41) 앞의 책, 52.

42) 앞의 책, 301.

43)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223.

에게 사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는 모든 행위의 완성으로서 무사무욕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인간적으로 그러한 사랑을 바란다고 성취될 수 없는 이유는 ‘바라는 것’을 통하여 이미 인간적인 욕망이 개입되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⁴⁴⁾ 따라서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윤리’는 인간이나 사회적 윤리의 요청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니버는 해석한다.⁴⁵⁾

니버는 사랑의 이상을 이루는 데 있어 헌신적인 사랑이나 상호 호혜적 사랑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상호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헌신으로서 “상호 응답을 끌어내며 그리고 인간관계의 특성을 변화시키면서” 역사 내 사랑을 실현하며, 초역사적 관점에서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헌신적 사랑]의 특성을 잃지 않으면서 상호 사랑의 응답을 요구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니버는 설명한다.⁴⁶⁾

이런 사랑은 정의와 관련하여 변증법적인 특성을 나타내는데 정의는 두 가지 영역, 즉, “정의의 규칙과 법칙”의 영역과 “정의와 사회 정치 조직의 구조”의 영역과 연관된다고 니버는 강조하면서 전자는 원칙적인 관점에서 추상적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역사적인 조건과 연관이 된다고 강조한다.⁴⁷⁾ 니버는 정의가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 관점에서 타자를 향한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첫째는 상호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정의에 대한 일종의 감정의 차원에서 의무감이 형성되든지, 둘째, 자아와 타자와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교류적 차원에서 정의감이 일어나든지, 그리고 셋째, 의무의 차원에서 개인의 신중함과 공동체를 위한 공평한 관점에서 정의에 대한 필요성이 요청되는 것인데 니버는 이런 상호 호혜적인 정의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공동체적 정신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강조한다.⁴⁸⁾

44) Reinhold Niebuhr, *Love and Justice: Selections from the Shorter Writings of Reinhold Niebuhr*, ed. D. B. Roberts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7), 31.

URL=<http://eds.a.ebscohost.com.ssl.proxy.mtu.ac.kr:8080/eds/ebookviewer/ebook/bmxlYmftXzQxMzYzX19BTg2?sid=20a9e653-6deb-4f36-b024-574259778d8f@sessionmgr4006&vid=1&format=EB&rid=7>. (최종접속: 2020년 9월 29일).

45) 앞의 책, 31.

46)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A Christian Interpretation*, 256.

47) 앞의 책, 256.

48) 앞의 책, 257.

니버는 위에서 살핀 정의와 사랑은 변증법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의의 상대적 개념과 사랑의 절대적 개념의 특성으로서 “사랑은 역사 내 모든 정의의 성취에 대한 완성이자 [그 정의에 대한] 부정”이며, “역사 내 정의의 성취는 더욱 완전한 사랑과 형제애 안에서 정의의 성취를 추구하기 위하여 가능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설명한다.⁴⁹⁾ 그러나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불분하고 완전한 사랑에는 못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의를 실현할 의무가 있어야만 역사는 의미가 있지만, 정의를 위하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랑의 이상과 모순되든지 아니면 근사치” 정도로 남게 된다고 니버는 설명한다.⁵⁰⁾ 이런 맥락에서 상대적 진리인 정의는 나름으로 정의의 원칙을 성취하기 위하여 역사적 조건 내 그 이념을 확장하여 나아갈 수 있겠지만 절대적인 사랑의 기준에 못 미치는 운명에 빠지게 되며, 정의라고 생각하는 이상에 근접하면 할수록 단지 근사치에 머물고 사랑의 이상은 더욱 요원하여질 것이라는 니버의 기독교 변증법은 역사 내 인간과 집단이 펼치는 상대적인 정의의 한계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통찰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니버는 정의의 추구와 사랑의 실현에 대하여 염세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니버는 국가 내 정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하여 이성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인간 의지의 완전한 타락에 대하여서는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는데 왜냐하면 완전한 타락의 경우 인간에게 도덕적 책임의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 바르트(Karl Barth)가 국가 내 정의의 가능성은 신적 섭리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고 본 점과 달리 니버는 국가 내 정의의 가능성은 “자기 이익[을 구하는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위한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의 발현”에 의하여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완전 타락이 아닌 이성과 의지를 통한 정의의 실현에 대하여 강조하는 견해를 보인다.⁵¹⁾

니버는 루터 정통주의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와 같은 이성의 기능에 대하여 부정적이어서 ‘자연법’의 여지는 없었다고 보고 있다.⁵²⁾ 그러나

49) 앞의 책, 255.

50) 앞의 책, 255.

51) Reinhold Niebuhr, *Faith and History*, 194. 니버의 Barth 인용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와 시민들의 공동체』, *Christengemeinde und Buergergemeinde*, 31.”이라고 각주에서 밝히고 있다. 같은 책, 194.

52)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A Christian Interpretation*, 301. 니버는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기 위하여 루터는 인간의 행위에 이어서 자연법의 가능성을 완전

“이성은 사실 주체로서의 자아와 행위 수행자로서의 자아 그리고 자신을 초월하는 자아와 행위에 있어 불안정한 자아 사이에 모호한 위치에 처한다. 자아는 이 양자를 섬긴다.”라고 니버는 설명한다.⁵³⁾ 여기서 “이성은 보편적인 판단과 일관적인 체계 내 모든 것을 서로 연결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고 니버는 강조하면서, 주체적 자아가 “죄 된 자아의 불공평하고 편파적인 행위”를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 된 자아가 “자신의 특별한 필요나 불안정한 통찰력”을 마치 보편적인 진리인 양 오판하게 되는 것을 비판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이성’이라고 강조함으로써 ‘근사치적 정의의 실현’에 희망을 피력한다.⁵⁴⁾

지금까지 필자는 이 장에서 기독교 변증법에 관한 니버의 관점을 ‘예언 전통의 역사적 해석과 믿음’, ‘창조주와 피조 세계와의 관계’, 그리고 ‘사랑과 정의’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죄’, ‘하나님의 자유와 피조물의 의존성’,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과 상대적인 정의’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분석한 니버의 신학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였으며 신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주었다고 본다. 특히 주체적 자아로서 ‘근사치적 정의’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인간 이성에 대한 니버의 강조는 이성에 절대 우위를 두는 관념론이나 이성의 가능성을 제한한 루터주의 신학을 넘어 역사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환기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새롭게 하여주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니버의 신학은 이제 바람직한 기독교 공동체 윤리적 관점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 의의에 대하여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IV. 니버의 기독교 변증법과 기독교 공동체 윤리

지금까지 필자는 변증법에 대한 니버의 비판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그의

히 부정하였다는 W. Wiesner의 관점을 소개한다. W. Wiesner의 관점은 다음에 실려있다고 인용된다. “*Christian Faith and the Common Life* (Oxford Conference).”

53) 앞의 책, 301.

54)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A Christian Interpretation*, 301-302. 니버의 양심에 대한 해석은 가톨릭과 루터주의의 중간에 선 칼빈의 관점을 따르고 있는데, 칼빈은 선과 악을 파악하는 도구로 이성을 해석하였다고 니버는 설명한다. 니버의 칼빈 인용은 “*Institutes*, Book II, Ch. ii, par. 12.”이다. 같은 책 301, ‘각주 1’을 참고하십시오.

‘기독교 변증법’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니버의 변증법은 르네상스와 이성주의 그리고 기독교 자유주의 신학을 막론하고 역사의 해석에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역사의 정치적 유폐이아는 역사를 초월하지도 그렇다고 역사 내 권력에 의하여 완성이 아닌 종말론적인 역사의 끝에 완성될 것이라는 희망을, 그리고 상대적 정의는 불가능의 가능성으로서의 절대적 사랑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인간을 역사적 또는 자연주의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를 바꾸는 주체적 존재로서 의지와 양심의 역할을 제시한 니버는 인간의 변증법적인 도덕적 책임을 통하여 바람직한 공동체 윤리를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필자는 이해한다.

니버의 기독교 변증법이 주는 공동체 윤리의 의의는 첫째, 인간의 유한성을 지적하고 믿음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신 중심적인 윤리’관을 형성한다고 본다. 니버는 인간이 처한 역설은 인간이 위대하여 보이면서도 동시에 약하다는 점인데 이는 인간에게 주어진 권력과 같은 힘이 커 보여도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실제 도덕성은 그에 못 미친다는 지적으로서 이러한 경향이 지속하면 “인간의 힘은 계속 증가함에도 인간의 근본적인 약함은 여전히 같은 상태로 남는다.”라는 문제를 초래한다고 니버는 경계한다.⁵⁵⁾ 이와 같은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역설을 극복할 가능성에 대하여 니버는 오로지 신앙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강조하는데, “인간의 의식과 기억은 시간의 순간들을 가지고 있어서 의미 있는 전체(whole)를 [맞추어서] 파악 [하려고 노력하지만]” 인간은 이러한 과정 중에 자신의 의식 세계에 갇혀서 인간이 파악하는 의미는 일괄적이지 못하고 변질하는데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인간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이며 이것이 신앙이 주는 해결책이라고 니버는 설명한다.⁵⁶⁾ 니버는 이러한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이성과 양심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도덕 폐기론이나 정적주의로 귀결되지 않고 주체적 인간성의 회복을 강조함으로써 도덕적 책무가 요청되는 공동체 윤리를 위한 교두보를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니버는 기독교 변증법은 기독교는 ‘권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심오한 ‘권위’, 즉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심오한 기독교

55) Reinhold Niebuhr,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Sermons for Today and Tomorrow*, 70.

56) 앞의 책, 88. 니버가 이러한 관점에서 인용하는 성구는 고린도후서 3장 5절이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개역 개정).”

교 신앙은 문화에 대하여, 특히 세속 문화 속에서 권력은 항상 독재로 변질할 수 있어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스스로 비판의 대상이 됨을 각성하는 관점이 중요하다.⁵⁷⁾ “만일 신앙이 [제도적으로] 공식적이거나 교리적이 되면 [기독교와 문화 사이의 비판적 기능에 근거한] 이상적인 변증법적인 관계가 무너지며, 비판에 무감각하게 된다. 만일 비판적 정신이 신앙의 모든 걱정을 눌러버려서 단지 비판의 정신만 남게 되어도 [그러한 변증법적 관계는] 깨져버리게 된다.”⁵⁸⁾ 니버는 인간이 처한 역설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데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가 유한과 무한 사이의 중심점”이기 때문이며,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약함을 선택하신 자비의 결과이며, 이를 통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모든 선행의 신비스러운 근원이자 목적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니버는 강조한다.⁵⁹⁾ 따라서 니버의 변증법적 신학은 종교 제도에 대한 강조보다는 그 한계를 예언적 정신으로 항상 갱신하며, 권력 대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교회 공동체의 이상을 구축한다.

셋째, 이러한 니버의 기독교 변증법은 현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공공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학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1, 2차 세계 대전의 참상에서 ‘위기 신학’은 기독교 변증법을 통하여 기독교의 방향을 재정향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듯이, 현 한국 사회의 기독교는 정치적으로는 남·북/남·남 갈등의 정치 이데올로기적 갈등에서 분열로 치달고 있으며, 선교 100주년을 훨씬 넘은 현대에 교회는 공적 영역에서 시대를 선도하기는커녕 사안에 따른 개교회주의와 교단의 제도 주의가 충돌하여 끊임없는 법적 소송으로 치달고 있으며, 교회로부터 실망하고 이탈한 소위 ‘가나안 교인’의 양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공동체 정신의 회복을 요원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는 ‘권력’을 탐하지 않고 오히려 세속 사회의 가치를 변증법적으로 비판하고 기독교 자신도 스스로 채찍질하는 예언자 정신의 회복을 통하여 ‘권위’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땅에서 추구하는 권력과 정의(Justice)의 상대적 한계를 고발하고 근사치 정의는 절대적 정의가 아니기에 오로지 불가능의 가능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혼탁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공동체를

57) Reinhold Niebuhr, *The Contribution of Religion to Cultural Unity*, 14.

58) 앞의 책, 14-5.

59) Reinhold Niebuhr,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Sermons for Today and Tomorrow*, 134.

위하여 교회와 신학이 노력하여야 한다고 본다.

V. 결론: 역설과 모순을 넘어

지금까지 필자는 니버의 사상에서 그의 ‘기독교 변증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신정통주의가 주창한 ‘위기의 신학’의 선봉에서 당시의 국가체제나 정치적 이념 그리고 기독교 신학의 한계를 주목하고 ‘예언자적 지평’에서 역사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공동체의 책무에 대하여 강조한 그의 관점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대성과 유한성은 애초 인간이 예상하지 못한 ‘역설’과 ‘모순’에 부딪치게 된다. 인간은 인간의 능력 밖임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역설적 욕망과 하더라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순 사이에서 좌절과 희망의 경계선에서 방황한다. 그럴 때마다 도덕적 패배주의나 윤리적 정적주의 또는 과도한 열광주의나 내적 신비주의로 귀착되는 한계에 다다르지만, 예언자적 이성과 양심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주의의 ‘기독교 변증법’을 강조한 니버의 신학은 우리에게 믿음의 영적 가치의 소중함을 재확인시켜 준다.

인간을 영원에 집착하는 유한한 ‘역설’적 존재로 파악하고 그러한 인간과 공동체가 이룬 성취는 결국 ‘모순’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니버의 ‘기독교 변증법’은 신학과 기독교 공동체의 유일한 표준은 궁극적 실재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망을 새롭게 한다. 그 소망은 스스로 투사한 허위의식도 아니며 역사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관자의 푸념에서 나온 독백과 같은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과학과 이성의 시대에서 ‘변증법적’인 믿음과 계시의 시대를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역설’과 ‘모순’에 처한 인간 존재와 방황하는 공동체를 다시 ‘십자가’ 앞으로 소환하는 이와 같은 니버의 신학은 기독교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이 다시 재 정향되는 데에 이정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Niebuhr, Reinhold. *Leaves from the Notebook of a Tamed Cynic*. Willet: Clark and Colby, 1929.
- _____.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New York: Harper & Brothers, 1935.
- _____.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of Ethics and Politic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36.
- _____. *Beyond Traged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37.
- _____.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0.
- _____.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A Christian Interpretation*. London: Nisbet & Co., Ltd, 1941.
- _____.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A Christian Interpretation*. London: Nisbet & Co., Ltd, 1941.
- _____.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London: Nisbet & Co., LTD, 1944.
- _____. *The Contribution of Religion to Cultural Unity*. The Hazen Pamphlet, USA, 1945.
- _____.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Sermons for Today and Tomorrow*.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6.
- _____. *Faith and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9.
- _____.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2.
- _____. *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5.
- _____. *Love and Justice: Selections from the Shorter Writings of Reinhold Niebuhr*. Edited by D. B. Roberts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7.
- <https://archive.org/search.php?query=Reinhold%20Niebuhr> [2020. 9. 29 접속]
- <http://eds.a.ebscohost.com.ssl.proxy.mtu.ac.kr:8080/eds/ebookviewer/ebook/bmxlYmtfXzU1ODMwN19fQU41?sid=20a9e653-6deb-4f36-b024-574259778d8f@sessionmgr4006&vid=1&format=EB&rid=4>. [2020. 9. 29 접속]
- <http://eds.a.ebscohost.com.ssl.proxy.mtu.ac.kr:8080/eds/ebookviewer/ebook/bmxlYmtfXz>

MxOTMzNF9fQU41?sid=20a9e653-6deb-4f36-b024-574259778d8f@sessionmgr4006&vid=1&format=EB&rid=6. [2020. 9. 29 접속]

<http://eds.a.ebscohost.com.ssl.proxy.mtu.ac.kr:8080/eds/ebookviewer/ebook/bmxlYmtfXzQxMzYzX19BTg2?sid=20a9e653-6deb-4f36-b024-574259778d8f@sessionmgr4006&vid=1&format=EB&rid=7>. [2020. 9. 29 접속]

<Abstract>

Reinhold Niebuhr's Christian Dialectics and Christian Community Ethics

YOO, Kyoung-Dong (Ph. D.)

Professor
Department of Ethics and Society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South Korea

Christian dialectic is a concept named from the movement of reorienting the theological directions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re is a limit to historical development through human reason. In particular, the acute insight provided by the Christian dialectic that claimed German Idealism and the First and the Second World Wars are not coincidences, not only adduced new views of faith regarding the existence of God, finiteness of human beings, and the significance of history, but also surfaced as a theological alternative to overcome the destiny encountered by humans in despair and is continued by scholars such as Karl Barth, Dietrich Bonhoeffer, Reinhold Niebuhr, and Stanley Hauerwas, in Christian Ethics.

The author comprehends that 'Christian dialectics' can still be an alternative within Christian theology in the current age. Specifically, the author observes that the theology of Reinhold Niebuhr, while it is in line with Karl Barth, emphasizes more the communal character of Christianity and suggests directions for a reorientation regarding the real Christian issue of the influence of Christianity becoming increasingly marginalized in the public sphere. Until now, the research on Reinhold Niebuhr were approached from political theology, based on the 'realism' perspective that commented on the nature of power and human limits, but it is expected that through this discussion, the theoretical grounds of the Christian communal ethics emphasized by Niebuhr theology would be examined. Overall, the author attempts to analyze the dialectics of Reinhold Niebuhr from three perspectives in this paper. They are about Niebuhr's 'criticism on dialectics,' 'Christian dialectics,' and 'community ethics.'

Keywords *

Reinhold Niebuhr, Christian Dialectics, Love and Justice, Prophetic Religion, Kingdom of God

• 투고(접수)일 : 2020. 9. 30

• 심사(수정)일 : 2020. 11. 2

• 게재확정일 : 2020. 11. 3